

마크 제닝스 박사, 마크, 강의 25, 마가의 신학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5, 마가복음의 신학입니다.

안녕하세요, 마가복음에 대한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책 전체를 훑어보았고, 각 문단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 내내, 저는 또한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주제와 사교의 선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에 시간을 조금 할애하여 더 큰 아크 중 일부를 다루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저를 도와주고 제 생각에 영향을 준 학자들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저는 Mark Strauss를 많이 언급했는데, 그가 Mark 복음에 대해 한 해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자들, 벤 워더링턴 3세, 제임스 에드워즈, 로버트 스타인, RT 프랑크. 그들 각자는 마가복음에 대한 나의 생각에 상당한 방식으로 기여했습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의 신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데이비드 갈랜드의 최근 출판물인 마가복음의 신학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특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논의한 내용은 확실히 그의 생각의 일부를 반영합니다. 마가복음은 본질적으로 한 가지 질문에 답하려는 책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마가는 복음을 선포로 시작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좋은 소식을 선포합니다. 그는 승리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복음은 비극이 아닙니다. 애가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기대되는 분,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이 오셨다는 기쁜 선포입니다

·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와의 관계에 근거해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에 대한 마지막 고려 사항을 마무리하고 마무리하면서 마가복음의 그리스도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마가복음이 예수를 더 강한 분, 그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고통을 겪고 죽으신 더 강한 분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의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고통받는 종이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 논의에서 저는 먼저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부여된 다양한 칭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칭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주요 칭호 중 하나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것은 복음서의 서두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마가가 일찍부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봅니다. 두 번이나 하늘에서 나온 음성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11에서 세례 때, 마가복음 9:7에서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두 번 다 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이다 , 또는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백부장은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매우 공감하는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진술도 있습니다. 악마들은 종종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그에게 "

당신이 복되신 분의 아들입니까?”라고 묻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언어를 살펴보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술과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모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공부 내내 논의했듯이 백부장의 고백을 향한 건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을 향한 건물이 있습니다. 마가는 백부장의 고백을 정말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의 문학적 스타일은 이 방향으로 움직였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것을 끊임없이 억제하거나 침묵시키는 메시아적 비밀 모티브는 문학적 긴장감을 조성하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언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을 준비한다. 마가복음은 십자가의 실현에서라고 답한다.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물론, 우리가 논의했듯이, 백부장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은 마가복음의 세례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이야기, 세례와 백부장의 고백에 모두 동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에서 하늘과 땅을 나누는 것은 휘장을 찢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에서, 거룩한 성전과 외부를 구분하는 것은 휘장을 찢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이 세례와 백부장의 고백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서막입니다. 흥미롭게도, 마가복음 10 :38-39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세례와 동일시하여,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다시 한 번 강화합니다. 즉, 세례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과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은 적어도 암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맡으셨고 마가복음 12:1-12의 교리에 대한 비유에서 자신을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논의했듯이,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 즉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한 개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리에 하인들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 하인들이 학대를 당하는 동안, 비유에서 절정에 도달하여,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시고, 농부가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시고, 지주가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연한 언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받는다든 용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리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비유에 비추어 볼 때,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수 자신의 예언과 함께, 이것은 교리의 비유에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다른 표식으로는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아버지의 아들이 마지막 사건의 시간을 모른다고 예수가 언급한 것, 마가복음 14장에서 아바를 사용한 것, 심지어 대제사장이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 복되신 분의 아들인지 물었을 때 그가 그렇다고 단언한 것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의 아들됨에 대한 진실과 그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진실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칭호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구약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되었으며, 특히 대관식 시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메시아, 즉 왕이 백성을 대표하는 기업적 우두머리라는 개념을 감안할 때 이는 타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라는 언어가 겹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는 마가복음의 서두에서 메시아로 식별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가복음에서 그 칭호가 중요하지만, 메시아는 복음서에서 문제가 있는 칭호인 듯합니다.

메시아가 사용된 나머지 여섯 번 중 다섯 번은 예수에게 적대적이거나 그의 사명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 자신은 이 칭호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를 위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메시아는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순간에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메시아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다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그것이 눈먼 바디매오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는데, 그는 예수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메시아적 연결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는 시편 110 :1에 대해 언급하면서, 오실 분이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보다 더 크심을 지적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메시아라는 용어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위대하고 다윗과 다른 분이라면 그 용어의 사용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칭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칭호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확인에는 동의하지만, 그 의미에 대한 이해에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아들이셨고, 그것은 승리의 입성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타지 않은 동물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던 스가랴 9장의 언급은 예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하고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도 예수의 매너리즘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주장의 합법성을 낳은 무언가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예수 자신이 가장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칭호들을 본다면, 당연히 우리는 즉시 인자로 다가갑니다. 인자는 예수에게서만 나타납니다. 마가는 그의 편집적 논평에서 그를 인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이 칭호로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누구라고 하는지, 심지어 그들이 그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었을 때, 아무도 “인자”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신을 “인자”라고 주장한 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가 축복받은 자의 아들인 메시아인지 물었습니다. 충분히 흥미롭지만, 예수의 대답은 그가 자신이 인자라고 확인하는 것으로, 신성모독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는 어떤 칭호나 진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살펴보는 동안 논의했듯이, 저는 예수가 사용한 인자라는 칭호가 다니엘 7장, 즉 인자와 같은 자의 모습에서 유래, 배경,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7장에서 보는 것과 예수 자신의 말씀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에 대해 자신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 8:38). 예수는 마가복음 13:26에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 속에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62에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니엘 7장의 인자와 같은 구절을 떠올리게 하고 반영합니다. 인자는 메시아라는 칭호만큼 고정되어 있지 않았을지 몰라도 확실히 높은 그리스도론적 칭호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사용하여 자신을 위대한 종말론적, 묵시적 인물로 규정합니다.

사실, 예수께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바로 그 칭호의 모호함이나 고정되지 않은 본질일 수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예수께서 원하시는 이해에서 벗어났고, 따라서 예수께서는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데 수반될 수 있는 정치적 열광에 저항했지만, 인자라는 칭호의 모호함 덕분에 그는 크게 걱정하거나 주저하지 않고도 그 칭호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자신이 더 강한 사람이라는 이분법을 포착하셨습니다.

인자로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대한 권위를 가진 자로 제시합니다. 그는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2장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심판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여러 면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사용하신 것은 다니엘 7장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곁에 있는 자에 대한 모티브와 맞아떨어 집니다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수께서 고난 속에서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신 것과 대조됩니다. 그는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에서 배척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인자입니다. 갈랜드는 그의 책에서 마가복음에서 제정된 그리스도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합니다.

저는 이 용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연구 내내 우리가 해 온 일과 맞아떨어지고, 마가복음은 구체적인 칭호 외에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행동과 말로 표현하는데, 그 행동과 말 중 많은 부분이 성경에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점을 많이 지적했고, 여기에 이 실행된 그리스도론,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좋은 요약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서 그분의 능력을 봅니다. 그분은 부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행동 중 하나는 제자들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름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패오의 아들 레위에게서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흥미로운 점은, 마가복음은 예수가 실제로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많은 배경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우리는 이들 중 일부가 어떻게 세례 요한을 따랐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런 다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를 따르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인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과 즉각성뿐입니다.

강조점은, 마가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것 사이에 비슷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순종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강조점이 제자들의 반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의 권위에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우리는 또한 악마의 세계에 대한 이 음성의 힘을 봅니다. 우리는 연구 내내 이것을 추적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를 영에 대한 최고 권위자로 제시합니다.

그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즉시 침묵합니다. 그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주인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즉시 주인을 떠납니다. 즉각적인 복종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강조점은 항상 신성한 힘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표현이나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예수와 악마 사이에 지속적인 싸움은 없습니다.

권위는 오직 예수님뿐이며, 그의 목소리에 있습니다. 사실, 권위는 마가복음에서 항상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그가 귀신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복종하게 하는 능력에 대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버나움에서 첫날부터 군중이 귀신들에 대한 그의 권위에 경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마가복음 3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의 권위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예수가 귀신 들렸고 베엘제불과 결탁했다고 비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예수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사람이 와서 사탄의 집을 습격하는 비유였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죄에서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요새를 습격하고 포로들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악마의 세계에 대한 권위와 예수의 목소리는 군단의 파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악마에 대한 예수의 권위의 범위에 대한 완전한 표현은 수백 마리의 악마에게 사로잡힌 이 불쌍한 사람, 군단이라는 적절한 설명이 있는 범위, 그리고 이것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과 즉각적인 명령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치유의 능력에 대한 이 제정된 그리스도론을 봅니다.

우리는 그가 열병을 치유하는 능력에서 그것을 보았고, 그것은 즉각적인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가 나병을 치유하는 능력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병은 오직 신만이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질병으로, 살아있는 죽음을 상징하는 질병입니다. 우리는 그가 마비 환자의 말을 듣는 능력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마비 환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를 죄를 용서하고 더 큰 치유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야이로의 딸에게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서 눈먼 자를 고치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절름발이를 고치고, 병어리를 고치는 것을 보는 것은 충분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것을 마가가 이사야 35:4-6을 말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 주시고, 절름발이를 사슴처럼 뛰게 하시고, 병어리를 기뻐 외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치유의 능력은 단순히 마가복음에 나오는 치유자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자신의 신성한 권위, 타락의 결과를 다룰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성한 기적은 이 제정된 그리스도론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신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적을 말합니다.

수천 명을 먹인 일이 떠오른다. 두 번의 먹임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방인들은 배고픔에 몹시 궁핍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종말론적 만찬,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끝에 주최하시는 그 위대한 만찬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에스겔 34장, 좋은 목자로서 좋은 방목지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반향을 일으키는 듯합니다. 시편 2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연회는 단순히 예수님의 보살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신성한 잔치를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4장, 폭풍을 이기는 힘은 창조적인 힘입니다.

창세기, 시편, 그리고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는 창조에 대한 권능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름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물 속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강을 지날 때, 강물이 그들을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의 치유는 여러 면에서 예수께서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기 9장, 요기 38장, 시편 77편, 이사야 43장은 오직 하나님만이 파도를 밟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는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경이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예수의 권위는 마가복음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위로 가르칩니다. 군중에 대해 논평하세요. 그는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로 가르칩니다.

예수의 가르침에는 안식일과 그 목적에 대한 판결, 순결법과 그 목적에 대한 판결, 식이법과 그 목적에 대한 판결, 이혼과 그 목적에 대한 판결, 가장 큰 계명을 선포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 중 하나는 예수의 권위가 서기관들과 달랐고 단순히 해석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예수는 신성한 의도의 자세를 취하여 율법의 의미와 이유를 제시했으며 단순히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가진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분이라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그리스도론을 가리키며, 이는 마가복음의 속죄 메시지와 대조됩니다.

마가복음의 그리스도론은 힘의 그리스도론이지만, 이것은 또한 예수의 고통의 필요성, 즉 고통받고 죽어야 하는 분의 고통의 필요성 내에서 유지됩니다. 저는 마가복음에 대한 이 개요를 속죄 신학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론과 속죄 신학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죄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마가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갈랜드가 적절하게 묘사한 신성한 필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의 첫 번째 예언은 예수의 권위, 예수의 능력, 예수의 그리스도론, 그리고 예수의 제정된 그리스도론을 확립한 8장 이후에, 예수는 사람들이 그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누구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절정처럼 보이는 부분에서 베드로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예수는 이에 대답하면서,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해야 한다"는 단어의 사용은 신의 뜻, 신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의 세 가지 예언에서 예수의 다가올 고난과 죽음 뒤에는 섭리가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단순히 악한 사람들이 위협에 대항하여 음모를 꾸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는 변형 후 제자들이 엘리야에 대해 질문했을 때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셨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면, 예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야를 세례자 요한이라고 언급하셨으며,

세레자 요한이 먼저 왔고, 엘리야가 먼저 왔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선구자이며 그의 고난이 인자의 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살펴보면, 예수는 인자가 그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성경 구절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인자가 그런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말하는 구체적인 성경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받는 종에 대해 말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사야, 특히 이사야 53장에 있고, 여기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부드러운 싹처럼 그 앞에서 자랐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우리에게 끌리는 아름다움이나 위엄이 없었고, 우리가 그를 사모할 만한 그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았으며, 고통받는 사람이요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는 그를 낮게 여겼습니다. 그는 확실히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지만,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 찢렸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준 형벌이 그에게 있었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길을 잃고, 각자 제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는 압제를 받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았으며,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이 잠잠한 것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압제와 심판으로 그는 끌려갔으나, 그의 세대 중에 누가 항의하였느냐? 그는 산 자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해 그는 형벌을 받았느니라.

그는 악인과 부자와 함께 무덤을 정받았으나, 그는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멸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여호와께서 그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그의 자손을 보고 그의 날을 길게 할 것이요, 여호와와 뜻이 그의 손에서 형통하리라. 고난을 당한 후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은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큰 자들 가운데서 몫을 줄 것이요, 그는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그는 자기 생명을 죽음에 쏟았고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했다.

저는 이것이 예수께서 언급하신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가야 한다고 기록된 방식에 대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의 섭리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처형은 단순한 치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들의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패배의 그림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승리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예수의 대관식 순간이며, 구원을 가져옵니다. 예수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죽음의 구원적 혜택에 대한 명확한 진술은 두 가지뿐이지만, 이 두 가지는 마가복음의 속죄 신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수난 예언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섬기기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고 결론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교환 가격으로 예수에게 가해질 폭력, 고통, 죽음의 그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사는 무언가.

물론, 이것은 즉시 이사야 53장과 우리가 방금 읽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출되고, 용서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가복음 14:24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다가올 고난과

죽음을 탈출기 이야기의 위대한 구원 행위와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의 속죄, 또는 마가복음의 속죄 신학이 전면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쏟는 언약의 피입니다라는 그의 진술에서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31:31-34를 떠올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사악함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셨을 때, 첫 번째 언약은 희생 동물의 피로 봉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을 봉인하여 옛 언약과 그 희생 제도의 필요성을 더 이상 없게 만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논의했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이 잔이 자신에게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이 잔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으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대리적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인들의 사악함을 제거하려는 신성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판결, 그의 거룩한 정의는 예수가 고난받는 종으로 고난을 겪으신 인자이시며,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더 강한 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의 피로 봉인된 새 언약을 지금 누릴 수 있도록 부여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지만, 그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며, 예수가 십자가를 견디기로 선택함으로써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가의 신학에 대해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지만, 이 마지막 토론과 복음서 전체에 대한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의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겪으신 더 강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연구에 감사드리고,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고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기를. 백부장처럼, 이 사람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Mark Jennings입니다.

이것은 세션 25, 마가복음의 신학입니다.